81자 천부경(天符經) 속에 숨겨진 천기(天機)

하늘의 숫자로 풀어보는 천부경

천부경(天符經)

一始無始一 析三極 無盡本 天一一 地一二 人一三 一積十鉅 無匱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일적십거 무궤
化三 天二三 地二三 人二三 大三合六生七八九 運三四成環五七
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생칠팔구 운삼사성환오칠
一妙衍萬往萬來 用變 不動本 本心本太陽 昻明人中天地一 一終
일묘연만왕만래 용변 부동본 본심본태양 앙명인중천지일 일종
無終一
무종일

천부경 81자에 담긴 속뜻은 각종 예언서와 하도낙서 육도삼략을 공부하기 전에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아무리 쉽게 해설을 한다고 해도 원문의 뜻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좀 쉽게 해석하는 방법은 없을까? 천부경은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삼신일체(三神一體) 삼진귀일(三眞歸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늘의 숫자를 가지고 천부경의 본뜻인 삼신일체(三神一體) 삼진귀일(三眞歸一)의 의미에 맞도록 해석해 보도록 하자. 천부경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는 하늘의 숫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성경과 주역의 수리 연동력과도 연계된다.

◈ 하늘의 숫자의 의미

1: 태초의 하나님의 수, **2:** 아담과 해와의 수, **3:** 하늘의 완전수(에덴동산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 **4:** 땅의 완전수 / 네 생물(만물)의 왕, **5:** 이긴자의 수 / 구세주의 수, **6:** 마귀의 수 / 4(땅의 수)+2(아담과 해와의 수) / 땅에서 되찾은 아담과 해와(3+3)의 수, **7:** 완성의 수(4+3) / 하늘(3)의 뜻과 땅(4)의 뜻이 이루어짐, **8:** 구원의 수(노아의 8식구), **9:** 회복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3+3+3), **10:** 이기신 하나님(弓乙十勝)의 숫자.

이제 이상의 하늘의 숫자로 천부경을 해설해 보자. 1부터 12까지 일적십거(一積十鉅)하는 괄호 안의 숫자를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

一始無始一 析三極 無盡本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1로 시작하지만 1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3극으로 갈라졌지만, 그 근본은 다(변)하지 않는다. 하나님(1)을 한 분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다. 태초 이전의 하나님은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셨다. 그런데 6,000년 전 삼위일체 하나님 중 두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 셋으로 갈라져 버렸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없어지지 않고 만물 속에 존재하고 계신다. 한 분 남은 하나님은 6,000년간 유리 방황하며 홀로 마귀에게 빼앗긴 두 하나님(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오셨다.

天一一 地一二 人一三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선천(先天)을 천(天)이라 하고 후천(後天)을 지(地)라 하고 중천(中天)을 인(人)이라 하며 선천은 1로 시작하고 후천은 2로 시작하고 중천은 3으로 시작한다. 태초의 하나님을 1이라 하고 땅으로 내어 쫓긴 아담과 해와는 2라고 하고 인간인 아담과 해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합하여 3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셋으로 쪼개어 놓았지만 마귀는 불안하여 다시 하나님을 천(天), 지(地), 인(人), 만물(萬物)의 네 가지(一三, 4) 모양으로 쪼개어 버렸다.

一積十鉅 無匱化三
일적십거 무궤화삼
일부터 쌓아서 10까지 커지면 상자가 없는 3으로 화한다. 한 분 남은 태초의 하나님(1)은 구세주(5)를 배출하여 마귀(6)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다시 하늘나라(삼위일체 하나님)를 회복할 계획을 세우셨으니 이긴자(5)가 출현하여 마귀를 이기고 마귀 옥(匱)에서 벗어져 나오게 되면 이기신 하나님(10)이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3)으로 회복이 된다.

天二三 地二三 人二三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천지인이 하나에서 둘, 셋으로 갈라졌듯이 하나님의 회복도 하나에서 둘이 되고 셋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도 5수가 되어야 하고 땅도 5수가 되어야 하고 사람도 5수가 되어야 한다. 태초의 하나님(1)으로 이 땅에 오신 목운(木運) 천사(天事)가 [해와 하나님을 찾고 마지막 아담 하나님을 찾음(2)]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3)으로 회복되신다. 마침내 마지막 아담이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이긴자(5)가 되고 완성자(7)가 되어 이기신 하나님(10)으로 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도 이기고(5) 땅도 이기고(5) 사람도 이겼다(5)가 되어 만물이 구원을 얻게 된다.

大三合六生七八九
대삼합육생칠팔구
1, 2, 3을 더하면 그 합이 6이 되고 차례로 7, 8, 9가 생겨난다. 1, 2, 3을 더하면 마귀의 수인 6이 된다. 마귀(6)가 갈라놓은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7)되어 구원(8)을 얻게 되니 이제 다시는 마귀에게 질 수 없는 완성의 삼위일체 하나님(3+3+3=9)이 된다. 천일(天一, 1), 천일일(天一一, 2), 지일이(地一二, 3), 인일삼(人一三, 4)에 천이삼(天二三, 5), 지이삼(地二三, 5), 인이삼(人二三, 5)의 5수를 각각 더하면 6(1+5), 7(2+5), 8(3+5), 9(4+5)가 생겨난다. 이는 후천의 1·6 수운(水雲) 천사와 2·7 화운(火雲) 천사와 중천의 3·8 목운(木運) 천사와 4·9 금운(金運)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運三四成環五七
운삼사성환오칠
3수와 4수의 운이 연결고리가 되어 5수와 7수로 온전하게 돌아온다. 중천의 3·8 목운(木運)과 4·9 금운(金運)이 합운(合運)하여 하늘(3)의 뜻과 땅(4)의 뜻을 이루어 마침내 금운(金運)이 이긴자(5)가 되고 완성자(7)가 되어 이기신 하나님(3+7=10)으로 출현하신다.

一妙衍萬往萬來 用變不動本
일묘연만왕만래 용변부동본
일이란 참으로 묘하여 만 번 가고 만 번 오는 흐름 속에서도 용도는 변하지만,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의 하나님(1)을 만 가지로 갈라놓았지만 이기신 하나님이 만 가지로 흩어진 하나님을 다시 하나로 되돌리는 역사를 하신다. 하나였던 하나님이 만 가지로 갈라졌지만 만물(萬物) 속에 거하시는 빛의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이 없다.

本心本太陽
본심본태양
만물(萬物) 속에 거하시는 빛의 하나님은 본래 태양과 같은 존재이다. 인간 속의 나라는 주체 의식인 마귀를 죽이고 하나님이 나라는 주체 의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빛의 하나님이 이기신 하나님으로 좌정하셨다.

昻明人中天地一 一終無終一
앙명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우러러 받들어야 하는 밝고 밝은 빛의 하나님이신 앙명인[(昻明人, 이기신 하나님(十勝)]이 하늘과 땅, 인간, 만물로 쪼개어진 우주를 다시 하나로 회복하고 우주의 왕권[중앙(中) 토운(土 11)]을 되찾아 왕 중 왕(王, 十二 12)이 되어 이 우주를 주관하신다. 6,000년 전 아담과 해와를 마귀에게 빼앗기고 홀(1)로 싸워오셨던 하나님은 마귀가 지배하던 사망의 세상을 끝내고 새로운 영생의 하늘나라를 건설하여 하늘의 백성들과 함께 눈물과 고통과 사망이 없는 세월을 영원무궁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10)5695-897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10)3661-9025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浜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